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먼로 구역

🌸 먼로 구역 이야기

먼로구역은 2022년 현재 총 11가정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역은 오랜시간 가족처럼 기쁜일에 함께 축하하고 슬픈일에 서로 위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하느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순간들 및 좋아하는 성경구절 혹은 좋아하는 글들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소중한 담아 두셨던 귀한 마음들을 꺼내어 나눠주시는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케이트 이사벨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8)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저를 부르실 때 성령께 의지하며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이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체험을 통한 경험들을 뒤돌아보면, 한번도 제게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에 부치는 일을 원하신 적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저를 필요한 곳에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가시어 저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워 하지 않고 “예!”라고 합니다.

🌸 민규란 엘리사벳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

나를 찾으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따르려하는 너를 축복한다.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너를 축복한다.

자녀를 봉헌하는 너를 축복한다.

자녀를 축복하는 너를 축복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열어라.

남을 아프게 하기보다 네가 아프기를 원하는 너를 축복한다.

내가 준 시련을 묵묵히 참아낸 너를 축복한다.

고통중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은 물 흐르듯이 흘러보내라.

참아내고 인내한것을 축복하노라.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이기를 꿈꾸는 너를 축복한다.

누구보다 눈물이 많고 여러마음을 가진 너를 축복한다.

가난한 이를 돕고 싶어하고 동정하는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을 채워 사랑으로 살아가라.

아침봉헌으로 하루를 열고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가라.

🌸 이규옥 올리안나

저는 살면서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 뵈 수 있었던 순간들은 우리 아들들을 처음 안아 보았을때와 지난봄 저희 어머니를 하느님 품으로 보내 드릴때 였어요. 어머니가 떠나 가시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저를 다시 성당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우리 모두 하느님 보시기에 좋더라” 라고 해주신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 저를 늘 깨워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기에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먼로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1. 민병집 요한, 민규란 엘리사벳
2. 배인호 스테파노, 배숙자 카타리나
3. 윤명숙 에스더
4. 이규옥 올리안나
5. 이 요한,
이케이트 이사벨라
6. 이종실 프란치스코,
이윤자 안나
7. 이호용 프란치스코,
최정원 레지나
8. 추민수 요한,
김자경 크리스티나
9. 허기욱 바오로,
허정자 데레사
10. 허영 요한,
이수미 데레사
11. 이윤경 비르짓다
12. 김정숙 엘리사벳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마라
이사 41. 10



바오로말씀연스

🌸 김자경 크리스티나

제 삶에 하느님을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1996년 성령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기도하고 뉘우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속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마주 대하며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던 순간, 저는 저만의 하느님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 이니라. Do not be afraid. I am with you” (이사야, 41:1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을 많이 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구절의 성가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 김정숙 엘리사벳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가끔 가슴이 저며 오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니, 아주 오래전 미국 성당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당 제대 앞 오른쪽에 큰 싸인으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라고 성경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이 구절을 읽은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미어지는데.. 하느님은 어쩌면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마음이 울컥 했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누기를 실천하는 먼로구역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 최정원 레지나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시편 16:2) 삶이 힘들거나 지칠때마다 저에게 늘 용기와 위로를 불어 넣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고 새가족을 맞이했던 순간들과,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느님 곁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던 시간들... 제가 살면서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사랑의 고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중
제14주일

2022년
7월 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00AM~3:0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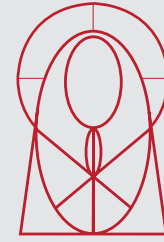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일흔 두 제자의 파견>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66,10-14ㄷ
- # 화답송 시편 66(65),1-3 7. 4-5.6-7 7.16과 20(© 1)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6,14-18
- #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음 루카 10,1-12.17-20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16 봉헌212 성체 151 파견4

미사지향 (연미사)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오경숙(세실리아)
- 이영훈(바오로) - 이정배(마크리나)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이명호(비비안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노광식 - 손 유스티노
- 김명균(미카엘) - 김명성(스테파노)
- 광창진(스테파노) - 광 루시아

미사지향 (생미사)

- 유병기(베네딕도) - 가족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 채로운(로운) - 채희백(바오로) 가족
- 박 크리스티나 - 박요아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30명).....	\$1,230	
• 교무금.....	\$1,180	
채희백(7-8)	이재서(7-12)	안울봉(5-6)
임안나(7-8)	임문수(7)	

한정 묵상

이집에
평화를 빕니다
루카 11.5



류상에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성당 입구에서 성가책을 받으시어 미사 중 함께 성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모회 주관 테네시 농장 농산물 판매

- 물품 수령일 : 7월 10일 (주일) 미사 전후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매일미사 구독 신청(2022년 8월-2023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책 \$66, 대형 매일미사책 \$102
- 7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계 기간 (7-8월) 사무실 업무시간 변경 안내

- 업무시간 : 오전 08:30 - 오후 13:30 (화-목)
- 업무시간 외 용무는 사무장 개인 연락처 (732-258-5998)로 연락바랍니다.

꼬미시움 주관 레지오 단원 일일 교육

- 일시 및 장소: 7월 31일(주일) 오후 2시-6시, 성당
- 강사: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위원회 회장단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 달성하였습니다. 6/24까지 약정금액은 \$43,024 (목표금액의 122.9%, 132가정 참여)입니다. 목표금액 달성 후 초과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과 함께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6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2022년 10월 7일 (금)
- 온라인 등록: <http://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bration>
- 연락처: 732-562-1543, amarshall@diometuchen.org

유스그룹에 도네이션 해주신 채희백(바오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웅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

제 1독서 이사야서 66,10-14ㄷ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6,14-18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0,1-12.17-20

그때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 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교회와 성인들 사이에 통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구절은 세 가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1) 거룩한 교회 2) 보편된 교회 3) 모든 성인의 통공. 이렇게 세 가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통공은 교회와 성인 사이의 통공이 아니라, 성인들 사이의 통공이라고 하겠습니까.(라틴어 원문상 ‘거룩한 것들의 공유’라는 뜻도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문장의 구조를 오독하면서 비롯된 오해입니다만, 여기에 더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반면, 성인들은 하느님 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추측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동떨어져 있으니 믿음으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교회’란 지상에 있는 교회만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또, ‘성인’도 성인품에 오른 천상의 모범적인 영혼만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성인은 누구를 말하죠?

여기서 ‘성인’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괄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을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초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성도’라 불렀습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성인’은 바로 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2코린 1,1)라는 구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번역된 단어와 달리, 원문의 단어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끼리 통공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 교회의 그리스도인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순례하는 교회’인 지상 교회, ‘정화 중의 교회’인 연옥 교회, ‘천상의 교회’인 천국 교회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 통공한다는 것은 지상과 연옥, 천국의 모든 영혼들이 서로 통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셋으로 구분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굳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 딸린 모든 사람은 그분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인 교회로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우리 지상 교회의 신자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의 변함 없는 신앙에 따르면,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진다.”(「교회헌장」 49항)

통공은 어떻게 하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통공, 즉 신도들이 공로를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로나 하느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하다.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로서뿐만 아니라 애덕의 효과를 통한 공로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말하죠. 기도, 선행, 희생 등으로 서로의 구원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통해 우리가 기도 받을 수 있고, 위령 성월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매 미사 때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출처: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